

34년 오직 한 길 빅토리 바디샵 벨플라워 플러튼 세리토스 롱비치 다운니 놀워

LIFETIME WARRANTY! 최대 시설/ 최고 서비스/ 저렴한 가격



- ✓ 보험 수리 전문 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!)
- ✓ Lease Return
- ✓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- ✓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- ✓ Towing & Rent Car

(562)920-9745~6 17441 Clark Ave, Bellflower, CA 90706
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오픈특가 \$7.00/LB

aci store

한국택배/ 24H 메일박스 오픈 (부에나팍 사거리)

- *전세계 16개국 25직영점 NETWORK/ 항공-해운 물류서비스
- *전자상거래-배대지-3자물류대행-한국역직구대행-전세계택배
- *개인소화물-귀국이사-미국내 화물/이삿짐 운송-수입수출통관

T.714.735.9277 www.aciexpress.net
www.shippingtohome.com



갈갈 웃음

[똑똑한 죄수]

주고받는 편지가 모두 검열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도소의 한 죄수가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. 아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물었다.

“여보, 뒷밭에 감자를 심고 싶는데 언제 심는 게 좋죠?”

죄수는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.

“여보, 우리 뒷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 되오. 거기에 내 돈을 묻어 놓았기 때문이오.”

며칠이 지난 후 그의 아내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.

“여보, 수사관들이 여섯 명이나 와서 뒷밭을 구석 구석 전부 파헤쳐 놓았어요.”

이에 죄수는 즉시 답장을 써 보냈다.

“지금 감자를 심을 때요!”

[고마운 의사]

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와서 말했다.

“선생님, 선생님의 치료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.”

의사가 그 사람을 잠시 쳐다보더니 말했다.

“하지만 선생님은 제 환자가 아닌데요.”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.

“알고 있어요. 제 삼촌이 선생님의 환자였지요. 저는 그의 상속자랍니다.”

[육쟁이 할머니]

어느 대학교 앞에 육쟁이 할머니가 하는 식당이 있었다. 이 할머니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정겨운(?) 육으로 모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신다.

학생 1: 할머니 물 좀 주세요.

할머니: 이 자식이야, 넌 손이 없나 발이 없나? 니놈이 가져다 먹어!

학생 1: 아~ 네에.

학생 2: 할머니, 뭐가 맛있어요?

할머니: 아무거나 갖다 주는 거 처먹어 이놈아!

학생 2: 하하하 할머니 너무 재밌으세요. 그럼 아무거나 주세요.

이런 할머니의 말투에 학생들은 웬지 모를 깊은 정을 느끼며 늘 친근감을 가졌다. 그러던 어느 날 단골 학생이 밥을 먹고 계산하려다가 지갑을 두고 온 것을 알았다. 그러나 학생은 워낙 할머니와 허물없이 지낸 터라 별 걱정 없이 할머니에게 말했다. 할머니, 저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요. 내일 드릴게요.

그러자 할머니 왈.

“아이구, 왜 그러십니까? 손님!”

[결혼기념일 여행]

두 명의 중년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.

“자네 결혼기념일이 곧 돌아오지?”

“그래, 아주 큰 기념일이지. 20주년이야.”

“그럼, 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예정인가?”

“호주로 여행을 떠날 거야.”

“음... 호주라, 정말 멋진 곳이지. 아주 근사한 선물

이군. 자네 정말 멋진 남편이야. 그럼 25주년 때는 뭘 할 건가?”

“호주에 가서 그녀를 데려오는 거지...”

[도플이한 연설]

어느 회사 사장이 중요한 모임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다. 그는 회사에서 가장 능력있는 사원에게 20분짜리 연설문을 쓰게 했다.

그런데 그 중요한 모임에 다녀온 사장은 노발대발했다. “20분짜리 연설문을 쓰라고 했더니 어찌자고 한 시간짜리 연설문을 썼어? 연설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청중이 반이나 나가버렸잖아.”

연설문을 썼던 사원은 당황해서 대답했다.

“사장님, 저는 분명히 20분짜리로 써드렸는데요. 그리고 사장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두 부를 더 복사해드렸고요.”

[아버지의 장난감]

다섯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장난감 하나를 사 들고 왔다. 그러고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누구에게 선물을 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질문을 했다.

“너희들 생각해 누가 제일 엄마 말씀 잘 듣고 대들지 않으며 시키는 것은 뭐든 잘하는 것 같아?”

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.

“아빠 장난감을 사가지고 오셨으면서 왜 저희들을 부르신 거죠?”

타운뉴스 업소록

“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.”

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

Phone: _____

업소명(한글): _____ 주소: _____

영판: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

업종: _____

-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
-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.



Tel 562.404.0027 Fax 562.404.0039
14311 Valley View Ave. #202, Santa Fe Springs, CA 90670

info@townnewsusa.com

